

코로나19 이후 문화정책 방향 탐색

코로나19 마음치유, 찾아가는 예술공연으로

전주시립예술단, 내달까지 '토닥토닥 힐링공연' 진행

광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 현장에 미친 영향·이슈 진단
 청중 없이 진행돼 녹화본 편집·공유, 이슈 페이퍼 형태로 활용
 김윤기 회장 "코로나19 장기화, 예술창작활동 생태계에 영향"

코로나19 환경이 지역문화 현장에 미친 영향과 이슈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연합체인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 회장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6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이수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을 개회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허정숙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문화 현장에 닥친 위기와 이슈를 진단하고, 향후 언택트(Un-Contact, 비대면)상황에서의 지역문화와 예술 콘텐츠 비즈니스를 전망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학순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의 사회

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부 코로나19 위기의 지역문화 현장, 2부 코로나19 위기 대응정책, 3부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문화 순으로 이어졌다.
 청중 없이 진행된 토론회 내용은 녹화본을 편집해 공유할 예정이며, 이슈 페이퍼 형태로 정리 후 포스트 코로나19 지역문화 연구보고서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윤기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역문화 현장은 물론 예술창작활동 생태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지역문화의 위상과 가치, 정책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로서, 지역문화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관계자 및 예술가 분들이 힘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정서적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진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공연을 선보인다.
 전주시립예술단은 오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위기마음치유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토닥토닥 힐링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힐링공연에는 전주시립예술단 소속의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시립극단이 참여해 △찾아가는 공연 △버스킹 공연 △권역별 순회공연 등을 펼치게 된다.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공연'의 경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중식시간 대에 관공서와 기업체 등을 방문해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버스킹 공연'은 매주 금요일 야간 광장, 공원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소규모 콜라보 공연으로 운영되며, 예코시티 세방공원과 혁신도시 영순공원에서는 '권역별 순회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상설공연과 정기공연 등도 만날 수 있다. 시립예술단 다목적실에서는 '음악극 어린이왕자'가 매주 화요일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시립교향악단과 시립국악단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의료진 등을 위해 '그대가 있어 우리는'과 '봄길', '꽃심' 등 마음치유 창작곡을 발표했으며, 비대면으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영상물로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확대 방안 모색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올 상반기 협력망 회의 이윤애 센터장, 협력망 위원 9명에 위촉장 수여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윤애)는 지난 15일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확대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년 상반기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회의의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잡코리아,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전북중년일자리희망센터, 전북대학교 LINC+, 제논전장(주) 등 9개 기관 및 대표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2019년도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보고와 2020년도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 확대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방안 등에 논의했다.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난 15일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확대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년 상반기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회의의 열 가운데 협력망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앞서 이윤애 센터장은 협력망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영란 여성정책 팀장은 "그간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정책은 채용지원 중심이었지만 여성경력단절은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도차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유기달 총괄이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여성·50대가 집중 타격을 받으며 고용위기가 번져가고 있다"며 "중장년 및 청년, 경력단절여성 모두 취업이 힘든 상황이기에 때문에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인식교육이 중요하며, 기업체 대상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논전장(주) 김응일 대표는 "숙련된 직원이 퇴사 할 경우 신규 채용으로 일정 수준의

역량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비용이 든다"며 "우리 기업에서도 현재 재직 중인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불안이 없도록 새일센터와 협력해 직장문화 개선 등 알찬 프로그램을 창출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고 말했다.
 이윤애 센터장은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인해 한 해 약 15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

되고 있다"며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취업지원 서비스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로 오늘 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회의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광역새일센터)가 주축

이 돼 2017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정례적으로 추진되며 지역 내 여성의 장기근속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방안과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센터 홈페이지 jwrcr.kr이나 취업지원팀 063)254-371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고창군 모로모로 탐방열차 운행방식 개편 '큰 호응'

고창군이 고인돌박물관과 고인돌유적지를 오가는 '모로모로 탐방열차'의 운행방식을 개편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로모로 탐방열차'는 객차 3량과 동력차 1량으로 구성된 타이어식 무궤도 열차다. 기존에는 1시간 간격으로 하루 6~7차례 운행했지만, 최근에는 23인승인 탐방버스를 투입해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교대로 운행하게 됐다.
 유적지를 좀 더 즐기고 싶은 관람객들을 위해 승차권 소지자에 한해 고인돌유적 1코스, 3코스에서 하차한 후 30분 뒤에 오는 다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열차 이용객의 정원을 30명 이하로 유지해 운영하고 있다.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유적은 500여기 이상의 고인돌이 밀집 분포되어 있으며 탁자식과 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혼재돼 있다. 모로모로 탐방열차를 이용하면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지를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